게을리할 수 없는 그림책 읽기

김형국
서울대 교수 · 환경학

'달력그림'이란 게 있다. 달수에 맞추어서 산수, 화조 같은 동양화가 주로 그려진 게 달력그림이다. 해가 지나면 병풍을 꾸미거나 벽면에 붙이는 장식이 된다. 예전같았으면 민화로 꾸몄을 장식인데, 민화를 그리던 환쟁이가 사라진 자리를 인쇄된 달력그림이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예전의 민화에 견준다면 달력그림은 궁상스럽고 초라하다. 민화는 장인의 손길이 생생한 작품이지만, 달력그림은 기계로 찍어낸 상품 달력이 시간이 지나 효용이 없어지자 그 폐품을 재활용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바꾸어 생각할 수도 있다. 그림사랑이 대중화되는 과정이 마침내 도달한 종착이 바로 달력그림이라고. 그림사랑의 시발은 원화를 갖는 것이다. 그러나 좋은 원화는 값비싸다. 넉넉한 한정된 계층의 전유물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세상이 근대화되자 그림사랑이 대중들에게로 퍼져나갔다. 이른바 문화의 세속화가 확산되면서 관심있는 대중들의 호주머니 사정에 맞추어 나타난 것이 판화였다. 판화도 보통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이기 쉽다. 그런 점에서 판화도 갖지 못할 형편이거나, 판화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 그림사랑을 할 수 있는 막다른 골목이 바로 달력그림이라는 추리가 가능하다. 그림을 투자가치로만 생각하기 일쑤인 오늘의 일반세태에 견준다면 가장 순수한 모습의 그림사랑인 것이다.

판화와 달력그림의 중간에도 그림사랑의 길이 있다. 그림 포스터를 벽면에 걸거나, 그림책을 가까이 하는 일이다. 그림책도 두 가지다. 전시회 팜플렛이 하나고, 이름난 작가의 그림을 책으로 엮은 화집이 또 하나다.

그림이 이 시대의 중요 문화활동이 되자 전시회를 찾는 애호가들에겐 팜플렛은 지천으로 손에 들어오고 있다. 미술이 투자가치로도 인식되기 시작하자 국내작가의 화집도 심심치 않게 만들어지고 있다.

팜플렛, 화집 등 그림 매체의 양으로만 따진다면 우리도 문화국가로서 손색이 없다. 하지만 질은 말이 아니다. 반미술적인 것이 많아 미술문화 확산에 해악을 끼칠 지경이다.

예술정신이란 게 무언가. '완벽성'도 마땅히 거기에 포함된다. 도대체 우리의 팜플렛은 완벽성과는 거리가 멀다. 작가소개, 평자의 말 등은 오자투성이다. 돈을 많이 들인 화집도 원화의 분위기를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제대로 색채교정을 못했기 때문이다.

화집이나 팜플렛 등 그림의 매체가 열악한 걸, 모두 만드는 사람의 탓으로만은 돌릴 수 없다는 생각도 해본다. 이 나라에 미술대학 졸업생이 한해에도 수천명씩 쏟아져 나오고, 도처에서 교양미술, 취미미술을 가르치는 강좌가 즐비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미술관련 책을 가까이 하지 않는 현실과 관련이 있을 성싶다.

미술은 읽는 게 아니고 보는 것이라는 믿음, 아니면 그림을 "아는 것보다 좋아하는게, 좋아하는 것보다 즐기는 게 낫다"라는 선현들의 경구를 신봉하는 탓일까. 즐기는게 아는 것보다 한 수 위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림을 즐기자면 그림을 아는 것이 필수조건인 것도 엄연한 진실이다. 그림을 알자면 그림책 읽기를 게을리할 수 없다.

외제에 손색이 없는 우리의 좋은 미술책을 보고 싶다. 수준급의 미술책이 아주 드문 게 공급측의 책임만이 아니다. 소비측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출판저널
1990년 6월 5일 제63호
격주간·매월 5, 20일 발행
THE KOREAN PUBLISHING JOURNAL, biweekly

표지인물 2 빙벽 앞에 선 50년, 그 '정신'의 힘
신작시집 「빙벽을 깬다」 낸 朴斗鎭씨
세미나 4 프랑스의 예술 및 아동도서출판현황 — 안느 드 마르쥬리
5 출판은 총체적 문화교류의 실질적 중개역 — 이기웅
심포지움 6 自淨능력으로 극복해야 할 퇴폐성 — 이원복
7 만화학의 정립과 만화의 사회화 — 임청산
서평 8 콘즈 「한글세대를 위한 불교」 — 목정배
엘리아데 「종교의 의미」 — 정진홍
9 뽈 아자르 「유럽의식의·위기」 — 심민화
홍성화 「國際法槪論」 — 김찬규
10 정순목 「中國書院制度」 — 김인회
디킨슨 「현대사회와 과학연구」 — 곽강제
11 김문환 「총체예술의 원류」 — 반성완
김재홍 「카프시인 비평」 — 권영민
확대서평 12 푸코를 통한 비평가적 문제제기 — 오생근
김현 지음 「시칠리아의 암소」
출판화제 13 性愛소설 서점가 본격 상륙
14 책으로 허무는 세대간 단절의 벽
15 출판계 배본전문업체의 현주소
저자인터뷰 16 「韓國傳統社会의 幼兒教育」 낸 유안진교수
서점순례 17 항구도시 忠武의 노포 '이문당서점'
이 책 그사람 18 「몽테뉴와 파스칼의 불교사상」 낸 민희식교수
「저울과 칼」의 작가 송우혜씨
19 「책」 창간한 이호림 도서유통개선협의회장
「아빠의 육아일기」 낸 맹명관씨
세계의 추천도서 20 베스트셀러도 추천도서일 수 있다 — 李重漢
일본경제에 영향을 미친 책을 중심으로
세계의 출판 22 '싸움'을 통해 본 중국의 현대사·외
컬러서가 24 미술평론가 吳光洙씨의 書架
독자서평 26 최금주/김정선/김신웅/정소진
28 새로나온 詩集
29 어린이책 들춰보기
30 신간안내
38 200자 안내/사전/향토지/자서전
40 신간목록
47 일간지 출판기사 색인
48 프리즘/독서퀴즈/정기구독 안내

표지사진/임영균